

알앤엘바이오, 세포치료제 제조 허가

식약청, 의약품 제조업 승인 ... 생물학적 제제 개발·상업화 기반 구축

알앤엘바이오가 세포치료제 제조업 허가를 획득해 상업화의 기반을 마련했다.

알앤엘바이오(대표 라정찬)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생물학적 제제 및 세포치료제에 대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획득했다고 8월18일 공시했다.

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“식약청의 허가로 세포치료제 개발 및 상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”며 “앞으로 생물학적 제제 개발 및 상업화에 주력하겠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8/18>